

민중신학의 새지평*

-동양사상과의 대화를 통하여-

안 병 무

전 한신대 교수 / 신약학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민중 신학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데 중심이 있고 그것이 종교의 다원화라는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화 되었고 앞으로도 심각히 논의 되어 할 분자와 어떤 접맥이 가능한가 라는 것으로 안다.

나는 여러분이 민중 신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전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탓으로 여러분의 민중 신학의 진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 과정의 중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

I. 민 중

1. 민중 신학의 길

먼저 나는 민중을 만난 나의 경험의 한 경우를 말하겠다. 예수를 알게 된 이후 나에게 비교적 일찍부터 극히 어렵게나마 민중과 예수를 한 울타리에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년기에 이용도 목사의 계열에서 나오는 「예수」라는 잡지에서 반영되는 「눈물의 예수」 성프랜시스스코에 관한 글들에서 철저히 가난한 예수, 그리고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인간사회에서 소외된 상태에서의

*) 이 글은 1994년 11월 10일에 열린 신학대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강연 원고이다.

예수의 출생 현장에 대한 깊은 인상,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매년 상영하

예수의 출생 현장에 대한 깊은 인상,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매년 상영하는 에집트땅에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히브리의 처지와 그들을 해방하려는 모세의 이야기...등등 그리스도교내의 분위기가 비록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민중적 분위기를 계속 예민한 소년에게 주입시켰다. 이것은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아무 목표도 없이 남부여대(男賦女戴)하고 황야와 같은 만주 땅으로 밤길을 도망치다시피 넘어와 철저히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눈은 죽지 않아 또릿또릿·반짝반짝하던 조선 사람들, 낮이면 일본군 또는 만주 관권의 분위기에 왔으나 해만 지면 은동네가 호롱불을 켜고 독립운동, 계렬라전, 공산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하여간 소년의 귀에는 생소한 말들을 밤깊게 나누며 모두 눈에 쌍심지를 붙이고 방금이라도 칼을 들고 나가 피를 쏟고 들어올 것 같은 기세 — 이런 것들이 내게는 몽그러져 민중에 대한 적어도 감성적인 이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저들이 누굴까? 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와 어머니의 손으로 지은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연방 한 손에 든 총을 매만지던 독립군이란,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과 교회에서 얻은 이런 연상들이 뒤엉켜서 내 뇌리에 파묻힌 채 오래 잠들고 있었다.

이에 나는 마가 8장에 나오는 소경의 눈뜨는 기사를 내가 당한 일처럼 곱씹히 생각하고 읽은 일이 있다. 예수가 한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나가는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그의 눈을 어루만진 예수는 거듭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참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민중의 대열은 진행되는데, 그리고 나는 거듭 민중의 고무 당당한 발소리를 듣는데 그 민중을 볼 눈이 없었다. 분명히 내 소년 시대의 상황이 소경이 내 눈을 어루만졌을 때 나는 걸어가는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써의 민중을 만났다.

언젠가부터 나는 가끔씩 생각한다. 왜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이 무엇이 보이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 앞에 선 눈을 뜨게 한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까?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소경에게 묻는 그이가 왜 내가 보이느냐라고 묻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서 '나를 똑바로 보아라 내가 누구지'라는 설명까지도 할 법한 현장이었는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그래서 지금은 눈을 뜬 소경이나 눈을 뜨게 한 그가 둘이 아니고 민중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하나로 명명한다.

2. 거리에서 만난 예수

나의 일생 소원은 미련할 정도로 역사상에 우리처럼 살아 있던 예수를 아는 일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역사의 예수 추구라 해서 역사의 예수에 관한 모든 문헌을 내 손이 미치는 대로 탐독했다.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하는 공판서를 몇백, 몇천 번씩 고쳐 읽고 분해하기를 거듭했고 일찍부터 회랍어를 공부해서 원서로 읽는데 까지는 갔으나 예수의 본래 말인 아람어로 예수의 말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 애매했다. 그의 모어가 영원히 사라지고 회랍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내게 가장 슬픈 일 중의 하나였다.

독일에 갔을 때는 신약학에서 역사의 예수를 묻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었다. 홍수같이 쏟아지던 역사의 예수 문서가 갑자기 정지된 것은 불트만의 「예수」라는 짙막한 책이 나온 것과 관련이 있다. 그 후 약 30여년간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의 손으로는 예수에 관한 책이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그의 제자들이 반론을 편 것이 1954년이다. 그 후 다시 역사의 예수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으나 단순히 문헌상으로 역사의 예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신약은 케리그마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예수를 묻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불신앙이라고까지 하는 단호함에 단연 반론을 펴야 할 묘안이 내게는 없었다.

나는 그 와중에서 일생에 이주지만은 끝끝내 관철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내세운 방법론이나 해석학의 틀에 있는 한 이 염원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멀어만 갔다. 10년공부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온 나는 얼마 동안 내 자신 어떤 신념도 없이 저들의 학설에 편승하고 서구 신학의 영역에서 헤엄치며 그것을 팔아 밥을 먹고 뿔뿔뿔한 생활을 계속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학을 해 온 것이다. 'Christianity without Jesus' 이렇게 나는 서구 신학사를 단정하고 공격해 왔지만 귀국 후의 학문적 작업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3. 전태일 사건을 만나다.

<전태일 사건의 확산>

▶ 1970년 10월 13일 -

이한열 피살 사건으로 이어져 그 사이에 죽음 당한 사건이 문서 상으로만 50건,

음독, 투신, 할복, 동맥절단등으로 25명 자살, 분신 자살 15명, 박종철 같이 고문으로 죽은 자와 그간의 고문등 의문사로 죽은 자가 22명.

<노동 분류>

▶ 1970년에 노동 분류 165건

▶ 1971년에 노동 분류 1656건

▶ 기독교계 1971년 9월에 수도권 도시 선교회 창설

▶ 인권위원회 NCC등이 생기기 시작.

나는 전태일을 시작으로 일으킨 이 민중 사건이 가을 숲에 타오르는 불처럼 얼마나 강렬하게 확산되는지를 보았으며 눈은 안 가려졌으나 눈을 뜨지 못한, 근대화라는 이름 밑에 색맹(色盲)이 되어 있던 사람들의 일부가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았다. 나도 그 중의 하나다.

둘째는 이 민중의 행렬은 바로 순교자의 행렬이었다. 그리스도교에는 이미 순교사의 역사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마침내 한국의 거리에서 이어진 것이다.

셋째, 바로 이 거리에서, 이 순교자의 행렬 맨 앞에서 나는 그토록 애타게 학문적으로 찾던 예수를 처음 만났다. 예수의 현존의 장은 교회도 신학도 아닌 바로 수난의 현장이었다.

넷째, 그런데 나는 이 민중사에서 단속적인 맥(脈)을 보았다. 그것은 각기 일회적인 특유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대가 없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민중 신학은 이 시대를 정치적 탄압의 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정치적 태도와 긴장 관계에 있었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고 성격화했다는 점이다.

II. 민중에게 달라지는 상황

1. 달라지는 세상

- ① 국경 없는 시대
- ② 다원화 시대
- ③ 첨단화 시대
- ④ 질(質)의 시대
- ⑤ 경쟁 시대
- ⑥ 해체 시대

특징

㉠ 문화주의 등장

군사적 협박·지상 이윤추구·대국주의 등이 여전히 건재하며 그것은 문화라는 것에 포장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

㉡ 정부도 자체를 문민정부로 시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 세계가 문화적 포장을 한 상품 개방을 강요한다. 그러나 군국주의·팀스피리트·북핵문제·무기 판매 등은 여전히 경제 실리주의가 거의 탄압적으로 강요된다.

㉣ 개방에 강요됨으로 세계의 소비품들이 쓰레기 전시장처럼 된다. 경쟁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함으로 강자만이 살 권리가 있고 약자는 생존권마저도 억눌리는 것이 정당한 듯이 세뇌되고 있다.

이상에서 오는 총괄적인 것은 민중 소외다. 국가도 대 국가만이, 기업도 대 기업만이, 그리고 엘리트만이 판을 치고 민중은 갈 곳이 없다.

일등주의가 엘리트 지상주의와 더불어 민중 멸시 상황으로 휘몰린다. 경쟁주의를 내세워 불평등의 현실을 깔아 뭉갬다. 이유야 어쨌든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살 권리가 없다는 분위기다.

거대한 정보구조·거대한 산업구조·이 거대한 군사시설·가속화하는 속도시대에서 몇 놈만이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다 관심 밖의 권리처럼 내몰아 버리려는 이 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민중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가.

다수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하면서 민중임을 거부하나 저들이 정치

음모의 내막, 거미줄 같은 정보, computer system에 참여하고 있나 ?
아니 그 정보의 세계는 하느님만큼이나 멀어져 가지 않나 ?

한마디로 우리는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 많은 소비품처럼 한 번 쓰고 쓰레기통으로 내 던져 간다. 「편리」라는 감언이설에 속으면서.

기만을 당하고 질식 상태에 빠진 민중은 그 다음 폭발의 모습을 「지존파」라는 한 집단의 행위가 잘 보여주었다. 그것은 결코 우연 발생적인 예가 아니다. 민중의 한(恨)이 현대화한 것이다.

그들보다 이른바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사람이 치어 거리에 쓰러졌는데 그를 치고 달아난 탱크니차를 볼 눈도, 죽어 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질 틈도 없이 그가 흘린 돈을 줍기에 허기진 개처럼 다투었다고 한다. 저들은 그 지존파와 본질상 나은 데가 있는가 ?

이른바 문화주의의 탈을 쓰고 겨우 출발한 오늘에 잔인한 현상이 마구 돌출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미래는 절대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 성수 대교의 붕괴가 문화주의로 포장된 이 시대의 허상을 잘 폭로한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서구 풍토의 맹목적 수용, 맹목적 모방의 결과다. 이 정부를 위시한 그간의 정부의 철학이 무엇인가 ? '잘 살아보세'가 아닌가 ?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이 아니었는가 ?

서구는 이 역사의 미래에 극히 비관적이다. 그들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 밖에서 찾으면서 그 대열을 되돌릴 수 없는 심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뒤를 밟으며 일등, 일등 한다.

우리는 위기에 섰다. 우리의 사고의 혁신과 전환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 길이 무엇인가?

III. 말의 지평을 넘어서

나는 이 자리에서 큰 두 가지 방향만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너무나 원칙적인 것이기에 현대인이 동한히 하고, 동한히 하는 동안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상(常)의 역할이다. 상이란 상식(常識), 상습(常習)의 상으로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다. 유대교에는 상은 일(日), 월(月), 성(星), 정진

(星辰)이라고도 한다. 해와 달은 별들처럼 항상 궤도를 돈다. 5상지도(之道)라고도 한다. 그것은 바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순환할 때 세상은 본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예외 없이, 속이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을 상도지인(常道之人)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은 모든 존재의 근거다. 그것 없이 세상은 돌아갈 수 없다. 만일 상이 반란을 일으키면 순간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 다 폭삭한다. 그러나 이 「상」이 놀랍게도 사람의 사고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멀시 내지 망각되고 있다.

사람이 사는데 숨은 상이다.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상시 숨을 잊고 살듯이 세상이 그것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상을 멀시 내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밥먹고 똥싸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상이다. 쉴 수 있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먹는데 도취하는 사람들은 똥구멍이 있어 먹고 숨쉬는 일이 가능한 것을 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가리고 산다.

따라서 동양의 가치관은 모두 이 자연관찰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는 도리의 원바탕도 자연이다. 농부의 바탕도 바로 땅인 것이다.

상은 말이 없다. 움직일 따름이다. 농부도 말의 족속이 아니라 땅을 파고 파종하고 그것을 햇빛과 땅의 습도로 조종하여 생명을 생산해 내는 조화자(造化者)다.

그래서 농부는 상인 중의 상인이다.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합쳐 역사를 창조해 나갔다. Culture가 Agryculture에서 나온 것은 바로된 것이다. 농민은 문화의 창조자로 말로써가 아니라 조화(造化)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 상을 높이 받든 것이 도교(道敎)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1장에 상도(常道)란 말을 쓰는데 28장에서도 또 한번 분명히 한다. 상은 언제나 있는 것, 그러므로 또한 영원히 있는 것이다. 상(常)은 구(久)다.

그러나 우리의 「쌍놈」의 아이러니-현대도 바로 이 상을 무시하고 1등, 천단...등등만 보다가 성수 대교를 만들었다. 만일 그 책임의 장본인들은 그렇게 두고 송사리 떼만 괴롭히다가 그 다리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상이 반란한다면 어찌겠는가? 자연은 상인데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마구 파헤친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나?

② 상은 말이 없다. 여기서 말의 지평을 넘어서 현실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다. 그 종교는 오늘의 종말 현상에 책임이 있다. 말은 말을 낳는다. 말을 바로잡기 위해 말을 쓰면 말만 남는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쏟아지는 말을 생각해 봐라. 소음 외에 남는 게 무엇인가?

서구적 기독교는 말 못하는 것은 모두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독교는 신도 말의 영역에 끌어들였다. 그러기 위해서 신과 자연을 분리시켰다. 신은 말하는 실재, 자연은 말없는 현실, 그것의 형상은 신은 인격, 자연은 A아니 B, 즉 무인격! 인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Persona로 마스크란 말이다. 자연의 한 부분에 마스크를 씌우면서 말의 영역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유신론을 만들어 내고 자연을 경의하는 모든 형태를 범신론이니 물활론이니 해서 저주했다. 그리고 민족들의 종교 행위는 모두 미신(迷信)이라는 딱지를 붙여 추방하려 했다.

그러나 말의 영역은 너무나도 좁다. 조그마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어”라고 하는 판에 그래도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말의 영역에 가두어 두고 먹물을 먹고, 먹말(글)을 쓰면서 그 대상의 가를 뺏다. 신학자란 신을 가장 축소하는 기술을 가진 자다.

말없는 세계의 재탈건

① 신은 말없는 세계, 즉 말의 지평 저쪽에 있다. 그런 면에서 민중도 말의 영역에 비껴어 매어 있지 않다.

② 우리가 민중은 하부리, 합비루와 연관시키고 마침내 오크로스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땅과 관련된 거기가 민중의 본 교향이다.

③ 자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와 호흡을 같이한다. 자연이 상되기를 거부하는 때가 종말이듯이 상인 민중의 조화 역시 우리의 종말이다.

④ 동양의 세계, 자연, 무(無), 신(神)- 믿음(無에서)

신(神)이 어떻게 서구 문화와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교리에 매어 있으랴! 신(神)이 어찌 교회당에 갇혀 있으랴! 어디까지나 이기적 동기로 경직화된 그리스도교에서 참 우리의 하느님을 해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적 사고와 동양의 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